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오직 진실만 감동을 준다 성경: 열왕기하 19장1-7절

Tag:

1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2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4 랍사게가 그의 주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5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6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왕하19:1-7)

오직 진실만 감동을 준다.

감동은 참 귀한 것으로 감동 까닭에 변화가 생긴다. 감동은 생명력을 배가 시킨다. 감동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게 하고, 도전해야 할 것을 도전하게 한다. 감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기적을 초청하는 계기가 된다.

페이스북에 우스게 소리가 소개 되었다.

술취한 남편이 아직 술에서 덜 깬 채 아침에 눈을 떠보니
침대 옆 탁자에 ‘여명1004’가 놓여있었다.

의자에는 잘 다림질 된 그의 옷이 놓여 있었다.

집안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주방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여보, 가게로 출근해요.

아침 식사는 오븐 안에, 신문은 식탁에 있어요.”

그때 아들이 들어오자 남편은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아빠가 잔뜩 취해서 새벽 3시쯤 들어오셨는데,

층계에서 비틀거리다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병을 깨뜨렸어요.

그 다음에 카펫에다 토하시더니

닫힌 문으로 달려가 꽂 부딪쳤어요.

그래서 아빠 얼굴에 멍이 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집 안이 이렇게 깨끗하고

네 엄마는 왜 내게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엄마가 아빠를 침대로 끌고 가서 바지를 벗겨 드리려고 애쓰는데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담, 이러지 마세요. 난 유부남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잘 수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아내가 감동을 받아서 남편의 숙취를 정성껏 도왔다
는 이야기다. 이 남자는 나에게 일편단심이구나. 아무리 술에 취했어
도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감동의 힘은 놀랍다. 감동을 받으면 사람은 변한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감동 받는가?

여행? 근사한 외식? 드라마? 영화? 아니면 사람에게 감동 받는가?

사람에게 감동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교회가 감동을 주어야 한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감동을 받아야 좋다.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말씀이다.

앗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멸망 시켰다. 만연한 우상숭배가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그리고 앗수르는 히스기야에게 쳐들어왔다. 왜냐면 그동안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히스기야는 무서워서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기둥에 입힌 모든 금을 벗겨서 바쳤다.

그러나 앗수르 왕은 다시금 군대와 비서(랍사게)를 보내서 성들을 무너뜨리며 예루살렘까지 치게 하였다. 전투가 개시되기 전에 랍사게는 항복하라는 투로 긴 연설을 하였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비판하였다.

1. 히스기야가 구스(에티오피아)와 애굽과 동맹을 하였는데 그들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앗수르왕을 이긴 나라가 없다.
2. 히스기야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지만, 지금 보아라 너희는 앗수르왕의 침략에 꼼짝 못하고 있다. 하나님도 앗수르 대왕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방언으로 히스기야를 모욕했다. 그들의 사기를 꺾고 비웃어 주었으며, 항복하면 행복하게 잘 살게 해 주겠다고 회유까지 하였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후에 히스기야가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

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1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는 앗수르를 두려워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

그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였지만, 스스로는 애굽과 구스를 의뢰하였으니 이것을 회개하였다. 애굽과 구스는 정작 필요한 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아마 그들은 전쟁이 끝나갈 무렵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주어먹을 심산이었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도 앗수르를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을 방패쯤으로 여기고 있었을 뿐이니까. 랍사게가 와서 조롱하고 위협하고 회유하기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히스기야로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형국인 셈)

3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기에 히스기야의 장점이 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 뿐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오라 하였다.

4 랍사게가 그의 주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와 유다인의 감동이 똑 같다.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향한 신앙전통이 살아있는 자들이다.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할 때 이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찼다. 감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격동된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는 말을 들으셨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들을 ‘꾸짖으실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이들이 이처럼 감동된 이유는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 경건의 힘이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낸 셈이다.

그러자 신하들은 이사야에게 좋은 소식을 받아 왔다.

7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는 자신의 일을 마치고 일단 앗수르왕에게로 돌아감
-앗수르왕은 당시 립나와 싸우는 중이었고, 보고를 받고 글을 써서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그 글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비웃는 글이었다. 다른 모든 나라의 신들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씌여 있었다.

-히스기야는 그 글을 읽고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천하만국의 주재이신 하나님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여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다른 나라의 신은 신이 아니요, 나무와 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내가 너의 기도소리를 들었다.

-산헤립이 자기의 업적을 자랑한다마는 내가 같고리로 그 코를 꿰고, 재갈로 그 입을 틀어 막아 너의 오던 길로 돌이켜 끌어가리라.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앗수르가 이곳으로 화살을 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서 앗수르 군사 18만 5천을 죽이

셨다. 앓수르 왕은 니느웨로 도망하였다. 그가 자기의 신당에 들어갔는데 신복들이 그를 죽였다.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랍사게와 산헤립의 주장은 이 세상 이치에는 맞는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 하지 않는 것처럼 들린다. 모든 나라가 앓수르에 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루살렘까지 멸망하리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의뢰해도 결코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별별 떨면서 모든 금과 은을 바쳤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시 쳐들어 왔다. 비로소 히스기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다. 이것이 진실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만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이 나랏일의 핵심이 되고 있다. 마치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에워싸임을 받고 모욕을 당하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모욕을 당하며 측근들이 하나 둘 잡혀 들어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싸운 것을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 그 측근들이 탄핵에 주도적이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이 나라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찬양예배〉

제목 : 핍박을 이기는 경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12절

Tag:

-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 6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 7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 8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 받은 자들이라
- 9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 10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 11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 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딤후3:1-12)

1. 말세에는 고통의 시대가 이르게 될 것이다.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 고통의 시대가 되는가?

-과거에는 삶 자체가 치열했기 때문에 나약하면 적응할 수 없었다.

(지금도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평균연령이 50세 미만)

-그러나 말세에는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도 면역력, 근력, 억척력이 줄어들음.(악착;齷齪)

-사람들의 정신력이 약해짐.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커짐.

-결과적으로 경건의 능력 밖에 남지 않음.

-시대가 변해서 과거처럼 악착으로 하기 어렵고, 결국은 타고난 능력이나 경건의 능력 밖에 없음.

2. 인격적 미숙으로 인한 고통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기적 자기애; 이기적인 자기애에 머뭇. 자궁함. 자아도취, 자립심 결핍, 교만함

-돈을 사랑함;돈을 위해서 다른 가치를 포기하는 현상.

-동물적 본능에 대한 사회화가 부족함;부모 거역, 비방, 감사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 사나움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3. 경건의 능력의 부재로 인한 고통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보다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함. (스토리 텔링으로 부모

의 경건에 대한 경험이 자녀에게 물려짐. 아니면 교회학교에서. 특히 성경말씀을 통해서 전달됨.)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생명력이 전달되지 않음.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나, 결정적이지는 않음.

-선한 행실에 대한 훈련.

-거룩함에 대한 훈련;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한 경외감. (예배, 헌금, 십계명, 성경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의뢰함. 하나님을 특별 대우함.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 사랑에 우선 순위를 둬.)

-순결과 정조를 지킴.

11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